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신향락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의 관계는 적어도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이 정도(正道)로 보인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는 얘기다.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가 고압적인 자세로 군림하려 들거나, 역으로 집행부가 '당근'을 내세워 의회를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려 든다면 그 지자체는 결코 정상일 수 없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민선 4기까지 우리는 후자를 익히 경험해 왔다. 의회가 민주당 일색인데다 의원들이 제 소임은 뒷전인 채 '이해'에 얽히다 보니 '무늬만 의회'로 전락했던 셈이다.

원인 전체 40%에 이르는 것도 이런 이유다. 민선 5기 들어서도 똑 부러지게 달라진 곳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순천시와 같이 무소속 시정, 민주당 중심의 의회가 벌이고 있는 갈등은 예견된 일이지만 꼭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렇다고 같은 조건의 광양, 강진, 곡성, 광주 서구 등이 소리가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

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이상하다. 광주시의 시의회의 관계는 역으로 의외다. '두 지방 한 가족'인데다 이전부터 관례처럼 굳어진 '내성'에 따라 밀월관계를 유지해야 할 진대 상황은 탄 판이다. 1년 남짓한 기간에 양측이 공개적으로 충돌한 것만도 4차례나 된다.

지난해 7월 민선 5기 첫 임시회의에서 윤봉근 의장이 강운태 시장의 광주시정 운영에 대해 일방적이고 임의성이라고 지적하자 시 간부공무원들이 반박하고 나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지난해 12월에도 시의회가 추진해온 유급보좌관제를

놓고 양측이 예산과 거래하려다 무산되면서 갈등의 골을 키웠다.

금년 2월 시가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세계인권도시포럼과 관련한 윤 의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달 홍진태 자치행정국장이 흥인화 의원에게 막말과 협박성 발언으로 시의회에서 공식 사과했지만 그 촉박은 연계된 감정 대립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어려울 것이다.

의회와 불협화음이 커지다 보니 시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실제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시가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의회 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이유로 잇따라 예산을 삭감해 애웃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광주시민은 물론 외지인들이 무등산과 그 주변을 좀더 가까이서,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무등산순환버스 운행이 예산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 수년째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광주시터투어버스도 예산이 잘려 나가 운행이 불투명하다.

무등산순환버스와 시티투어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게 된 데는 양측의 소통 의면

이 주된 요인이다. 의회는 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삭감 이유였지만 시가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하지 않은데 따른 양측의 감정 대립이라는 얘기가.

강운태 시장 취임 일성 새겨야

지금 광주시는 모든 게 최악의 상황이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재정은 밑바닥이다. 하계U대회 준비, 군 공방 문제, 구도심 공동화 등 산적한 현안이 수도룩하다. 상생으로 가도 힘겨운 판에 힘겨투기로 맞서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목에 힘을 주고, 예산을 무기로 집행부에 군림하려 든다면 그건 때를 모르는 착각이다. 의원의 60%가 새 얼굴로, 초심(初心)을 잃지 않는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가 최선이다. 스스로 자정능력을 키워주지 않는 한 3년 후 새로운 물결이기는 자명하다.

집행부 역시 의회에 대한 경시나 월권행위는 시민들에 대한 도전이다. 윤 의장의 지적처럼 시장 운영이 일방적이고 임의성변칙이라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전히 타성에 젖어 의회를 '협조자'쯤으로 인식하고 소통 자체를 거부하는 게 문제다.

강운태 시장은 취임 일성이 대화와 소통이란 점을 스스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보고 또 듣고 있다.

(논설주간) hshin@kwangju.co.kr

시설

4년 앞 U대회 국비 지원이 관건이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먼저, 시설 및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과 기업 스폰서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다. 재정이 극히 열악한 광주시로서 '적자 대회'를 치른다면 그만큼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대륙,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준비한 국제이벤트 속에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광주U대회에 대한 중앙정부나 대기업의 지원 및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다.

광주U대회에 투입되는 1조 원의 예산 가운데 국비가 30% 가량 지원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70%에 해당하는 7000억 원을 조달하는 방안이다.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는 금년 상반기 현재 7711억 원으로, 대회 이후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방채가 급증할 경우 도시철도 2호선 등 현안

사업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 지원과 대기업 스폰서를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광주시는 U대회 후자 달성을 위해 중장기 재원 마련 방안을 서둘러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U대회 흥행 이벤트 또한 간과해선 안 된다. 과거 부산아시아대륙에서 보듯 북한 팀 참여를 유도하면 흥행에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남북 정세 속에 남북의 대학생들이 체육 이벤트를 통해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벽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민들이 체육 이벤트를 통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장벽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원봉사, 광산업·LED 등 지역의 첨단기술과 녹색·생태를 아우르는 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도 필수다. 앞으로 남은 4년 7711억 원으로, 대회 이후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방채가 급증할 경우 도시철도 2호선 등 현안

1000대 기업 단 28곳, 참담한 지역 현실

국내 1000대 기업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기업은 28곳뿐이라고 한다. 100대 기업에는 단 1개 기업만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기업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정보서비스 '코캄비즈'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광주·전남지역 기업은 28개사(2.8%)에 그쳤다. 지역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8645억 원으로 전국 평균 1조3893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매출액 비중은 1.3%에 머물렀다. 100대 기업에는 현대상호중공업이 유일하게 86번째에 등재됐다.

이런 기업 현황은 지역경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일정 규모를 갖춘 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리 만무하다. 인구 유출과 지역 낙후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역 내 지자체는 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하

지만,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의 역외 유출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몇 안 되는 지역 중견기업마저도 잇따라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는 등 지역기업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이 살아야 하고 유망 대·중기업의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지자체와 지역민이 합심해 올인 해야 한다. 노사문화의 선진화, SOC 시설의 확충 노력은 무말갈 나워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민의 기업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기업유치를 위한 보다 정밀하고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과 개별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 타 시·도와 차별화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펜클럽



서미정

매년 열리는 지적장애인복지증진대회가 며칠 전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지적장애인지지관리주장대회 지역예선과 지적장애인 작품전시회도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함께 실시되었다.

자기주장관리대회는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부모, 가족, 교사, 전문가, 단체 실무자 등)를 통해 지적장애인 스스로 사회의 동등한 주체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행사이다.

20명의 남·여 지적장애인 참가자들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무대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피아노연주, 댄스, 노래부르

지적장애인 자립 희망 '맞춤형 일자리'

기 등)과 함께 선보였다.

노래를 부르며 기분이 상쾌해져서 나는 가수다에 도전장을 낸 지적장애여성 L양, 볼링선수가 되기 위해 체중도 조절하고 지구력, 손발력, 유연성도 키우겠다고 다부진 꿈을 발표하는 O군,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 상을 많이 받은 경험을 자랑하며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진 멋진 J군, 돈을 벌어 아픈 사람과 불우이웃을 돕는데 쓰고 싶다면 N군, 화재로 위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소방관을 꿈꾸는 C군,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K양, 사회 복지사의 꿈을 향해 직업재활 현장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 O군 등.

참가자들이 바라는 소중한 꿈과 희망들을 보며 꼭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등목 장애인 수는 약 250만 명이 넘는다. 1990년 장애인의 무고응제 시행된 이후 장애인 고용률은 꾸준한 상승세에 있다. 하지만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두 배 높고, 중증장애인은 그보다 더 높다. 직업능력이 있는 장애

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용안정화가 되어 있지만,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에 따라 고용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사례 1〉 P(48·지적장애 3급)씨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일터를 연계해 보지만 쉽지 않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을 해야 하는데"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P씨는 돈을 모아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키우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소망이 있다. 어려서부터 시골농장일과 벽돌공장에서 육체적 노동을 오랫동안 해서인지 이제는 몸이 자꾸 아파서 힘든 일은 할 수 없는 상태다.

〈사례 2〉 C(25·지적장애 3급)씨는 컴퓨터사용과 문서작성작업, 엑셀, PPT 등을 능숙하게 잘 다룬다. 장애인단체에서 1년 계약직으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제공 목적으로 워드입력원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

다. 지금은 보조작업장에 다니고 있으며 한 달 꼬박 일해서 버는 돈은 10만원 정도다. 버스비와 점심비용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 놀지 않고 그나마 다닐 수 있는 일자리라도 있으니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며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도 있다.

단지 지적장애인이란 이유로 개인의 재능과 욕구는 무시한 채 3D업종과 단순생산직, 제과제빵 등의 제한된 직업현편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조건, 열악한 근로현장을 강요받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는 인간성과 능력의 장애가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합한 일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이며, 국가가 할 일이다.

원하고 바라는 직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로 사회연대의식을 느끼게 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 함께 관심을 모으고 노력을 해야 한다.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회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클럽을 신는 코너입니다.

기고



나강문

최근 들어 일기에보는 연일 '비' 또는 '호림'을 예보하고 있고 빨래와 세차지수는 낮다. 비가 오지 않으면 후텁지근한 날씨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날들이 이어진다. 이런 날은 웬지 모르게 기분마저 처지고 일들도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보통 우리에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뭔가 잘 풀릴 때는 "아 오늘은 좋다" 혹은 "저 사람 운이 좋네"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운이 있기를 바라며 가까운 사람에게는 "운수대통"을 빌어주기도 한다.

때로는 인생 역전을 꿈꾸며 '도포'를 사면 서도 운을 빌고, 아첨 출근길에 바닥에 떨어

운이 좋은 사람은 재난을 예방할 줄 안다

진 동전 하나라도 발견할라치면 운 좋은 하루를 기대한다. 그런 날은 하루 종일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데 운이 좋지 않을 때는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좋지 않은 일만 연달아 일어난다. 운이아말로 '끌어 당기는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리처드 헨리 박사는 행운에 대해 10년 동안 조사한 결과,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4개의 법칙을 발견했다.

첫째, 기회를 최대한으로 넓힌다. 운이 좋은 사람은 우연한 기회를 만들어 내어 기회를 가치를 빠르게 눈치 채고, 행동으로 실천한다고 한다. 둘째, 불안감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 직감과 본능을 믿어 올바른 결단을 한다는 얘기가. 셋째, 행운을 기대한다. 장래에 대한 기대와 꿈과 목표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넷째, 불운을 행운으로 바꾼다. 실재하더라도 금세 생각을

바꿔 재도전을 한다는 것이다.

삼성그룹을 세운 호암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자주 북으로 '운(運)', '돈(鎊)', '근(根)'의 글씨를 써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運)이 따라야 하고, 당장 운이 없으면 우직하게(鈍) 기다릴 줄 알아야 하며, 운이 닿더라도 끈기(根, 끈성)가 있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르침이란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운'이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다. 대각사 주지인 퇴허자 도산 스님께서는 "운이라는 글자를 180도로 뒤집으면 '공'이 된다고 하시며 '운이란 공을 들여야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운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화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운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남들 다 쓰는 전

기장판이 하릴 내 것만 과일될 것이 뭐야?' '사골 고다가 술 한두 번 안태워 본 사람 있겠어?' '누전 점검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화재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부주의라는 것이다. '운이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다시 바뀌 공을 들여보면 분명히 불운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부득이 화재가 났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화기를 준비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들이 별 소용 없을 것 같지만 총남 연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무료로 보급했던 단독경보형감지기 덕에 주민이 목숨을 건지기도 했다.

'나는 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전에 주위를 둘러보자. 화재는 뜻하지 않게 생기는 불행한 번고지만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행운을 기다리고 만들어 가는 것도 좋지만 먼저 화재와 같은 재난을 막자. 그것이 행복의 첫 걸음이다.

(광주동부소방서장)

생태계 보전 위해 외국산 과일 반입 자제해야

최근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오던 중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할 때쯤이었다. 출국 때와 마찬가지로 귀국 때에도 귀국신고서를 쓰게 된다. 그런데 옆 자리에 앉은 한 부부가 나지막이 하는 말이 들렸다.

"과일류를 가지고 오는지 적도록 돼 있는데 어떡하지?"라고 주부가 묻자 남편은 "뭐 일일이 검사하겠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

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신고를 하게 됐다. 그 부부는 내 바로 앞에 서 있었는데 운이 없게도(?) 가방 속에 호두를 가져오다가 검역소 직원에게 적발됐다.

직원은 이런 견과류는 반입이 금지된 것이라며 폐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부부가 "아이들이 호두를 좋아해서 사온 건데

몇 개만이라도 안 되겠느냐"고 요청했다. 직원은 "국내에 유입될 수 없습니다"라고 재차 친절하게 설명했다.

외국산 과일은 국내 식물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자칫 병충해가 퍼질 우려가 있어 정식 절차 없이 국내 반입이 금지돼 있다. 만약 과일에 유충이 기생하고 있다면 국내에 들어 온 뒤 농촌으로 퍼진다면 그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꼭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라도 규정과 법규를 지키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임을 명심하자.

▲김선강·광주시 북구 용봉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화, 민중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동서고금을 통해 절대권력의 주변에는 권신(權臣)이 발호하게 마련이다. 청의 5대 황제인 건륭제는 청의 마지막 태평성대를 장식한 명군이다. 하지만, 그런 건륭제도 집권 후반기에는 천하 제일의 간신으로 불리는 '화신(和申)'을 비호함으로써 결국 청의 쇠락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건륭제의 총애를 받아 32세에 호부상서가 되어 국고를 책임지는 자리에 오른 화신은 뇌물을 받고 죄를 사면해 주는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다. 또, 자신의 아들을 건륭제의 막내딸과 결혼시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하지만, 호가호위(狐假虎威)라, 호랑이 뒤에 숨어 거짓 권세를 부리는 여우에게는 결국 한계가 있는 법. 호랑이인 건륭제가 죽자 뒤를 이은 가정제는 '부정부패' 등의 죄목을 들어 화신에게 자결을 명령한다. 화신이 하안 비단으로 목을 매 자살한 뒤 몰수된 재산은 은 9억 9천만 원으로, 당시 국가 총 예산의 무려 12배였다고 한다.

최근 도청 논란에 휩싸였던 영국의

주간지 뉴스오브더월드(NoW)가 끝내 폐간된다는 보도다.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 소유인 NoW의 전 편집장으로 서, 도청 논란의 중심에 선 레베카 브룩스는 머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승승장구 해 온 인물이기도 하다. 미웠던 부하직인 때문에, 평생 쌓아올린 미디어 제국이 흔들리게 된 셈이다.

권력자 주변에 사람이 물리는 것은 인자상정(人之常情)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을 선별해 쓰는 권력자의 능력이다.

최근 광주시가 민선 5기 2년차를 맞아 경제 및 정부분야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분야 보강의 경우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 광주시와 시의회 간 소통이 적절히, 그리고 충분히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많은 갈등과 부작용이 빚어졌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후문이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베야 말한 뒤 제대로 된 인물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홍행기정경부처장 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 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